

#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살고 싶은 곡성' 앞당긴다

### 군, 첫 지급 기념 '기본소득데이 0330' 행사 개최 정책 안정적 정착·제도 운영 체계적 구축 등 집중

곡성군이 선도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다시 살고 싶은 곡성 구축에 앞장선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기념하는 '기본소득데이 0330'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약 3개월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의 첫 지급이 이뤄지는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됐으며, 군 공무원과 도의원, 군의원, 상인회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사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 보고,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전달식, 첫 지급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본소득 카드 전달식에는 곡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어르신, 청년, 다동이 가족이 참여했으며, 다동이 가족 자녀 4명에게는 실물 선불카드가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 후에는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전통시장과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 스티커 부착과 첫 결제 이벤트를 진행하며 기본소득 사용을 독려했다.

군은 이번 첫 지급에 앞서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3개월간 단계적인 준비를 추진해 왔다. 읍·면 위원회 구성과 사전교육, 군 공직자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이해 교육, 지역농협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 체결, 상인회·상점가 가맹점주 간담회,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



최근 곡성 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제공=곡성군청

축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급은 2~3월을 포함해 개인당 30만원이 지급되며, 선불카드 신청자는 4월 3일까지 읍·면

중 배부 기간에 방문 수령해야 한다"며 "첫 지급을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람이 머물고 다시 살고 싶은 곡성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경제 조성을 육성하고, 먼 단위 사용자 확대 등 지역 순환 경

제를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gwangnam.co.kr

## 여수,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 준비 착수

### 국제회의 전문 대행사 선정...20~25일 박람회장 일원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연계...산업·지역 기반 협력 운영

여수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국제회의 전문 대행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기후주간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리며, 전 세계 198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 1만

4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포레스컴을 대행사로 선정하고 회의장 운영과 숙박·교통 지원, 현장 운영, 부대행사 추진 등 행사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확정했다.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참가자 관리, 홍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여수에서 열리는 유엔기후주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과 연계 개최되며 고위급 회의와 정책 포럼은 물론 산업·지역 기반 협력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국제행사

로 운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기후주간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빈틈 없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행사 기간 1만4000여명의 방문객 유입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 강화와 함께 국내 기후·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광양지역 문인들 "문학관 건립 촉구"

### 시민 문학가치 전승 활성화

광양지역의 문인들의 작품세계를 계속하고 문학작품 등을 전시하는 공간이 없어 문학관 건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광양지역 문인들에 따르면 광양시는 산업도시이자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거주·활동했던 공간이 없다.

문학관이 필요한 작가들로는 매천(梅泉) 황현, 정채봉, 이균영, 박해강 등이 있다. 문인이자 시인, 열사인 매천 황현(1855~1910)은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에 태어나 1888년 생원회시(生員會試)에 장원으로 합격했으나 당시 수구파 정권의 부정부패가 극심해 낙향해 구례에서 서재를 만들어 후학을 가르치면서 '매천야록', '오하기문'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했다. 한국의 안데르센으로 불리는 아동작가 정채봉(1946~2001)은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서 태어났으나 3살 때 외가인 광양읍에서 동초등학교, 광양중학교, 광양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동국대학교(국 어국문학)를 졸업했다.

그는 '불에서 나온 새', '내 가슴 속 램프', '초승달과 밤배', '진주' 등의 작품을 남겼고 월간 '샘터'를 발행하는 '샘터사'

에서 편집자로 일했으나 55세로 갑갑으로 별세 했다.

소설가이자 역사가인 이균영(1951~1996)은 광양읍에서 출생. 경북고와 한양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덕여대 교수로 활동했으며 197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바람난 도시'가 당선 소설가로 등단됐다. 이후 '어두운 기억의 저편', '풍화작용', '북망의 그늘', '벌리 있는 빛' 등의 작품을 남겼다.

리얼리즘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는 박해강(1955~2024)은 진상면에서 출생해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중편 소설 '검은 화산'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검은노을', '다시 불러보는 그대 이름', '안개산 바람들' 등 작품을 남겼으며 1991년 '검은노을'로 제1회 실천문학상을 수상했다.

또 광주전남 소설가협회장, 광주전남 작가회 회장을 지냈으며 2024년 방광암으로 별세했다.

박지선 한국문인협회 광양시지부장은 "다른 지역에는 대부분 문학관이 있는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도시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는 광양에 문학관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차니는 어린이들을 위해 시민들의 문학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도 조속히 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천 기자 kkkjin@gwangnam.co.kr

## 고흥, 청년 창업자 8명 모집 1인당 최대 1800만원 지원

고흥군은 예비·초기 청년 창업자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공고일(3월 30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흥군으로 전입이 가능한 18~4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창업 교육 대상자 20명을 선발해 1박 2일간 창업 집중 교육(부트캠프)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선발된 최종 8명에게는 1인당 최대 18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2명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등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군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401) 또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061-661-1939)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전경.

사진제공=보성군청

## 보성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 지정...치유거점 위상 인증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2026년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에 지정됐다.

특히, 녹차탕·찜질 체험, 녹차 죽육·헨드스파 프로그램, 친환경 음식 만들기·천치유 프로그램, 시설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 인증 제도로, 전국 우수 치유 관광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지난 2019년 첫 선정 이후 8년 연속 이틀을 울리며 지속적인 운영 성과와 경쟁력을 입증했다.

센터는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숲과 차밭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치유와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초 건강검진과 상단,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건강 증진 체험,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용자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녹차탕·찜질 체험, 녹차 죽육·헨드스파 프로그램, 친환경 음식 만들기·천

연염색 체험, 녹차오라다 만들기 체험,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자연과 치유를 접목한 특화 프로그램이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울러 군은 시설 개선과 체험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2개소 10동 리모델링, 숲속 맨발길 1km 조성, 산나물 채취단지 2ha 조성 등 보완사업을 추진해 이윤과 편의성과 체험 다양성을 강화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연염색 체험, 녹차오라다 만들기 체험, 숲 체험 프로그램 등 자연과 치유를 접목한 특화 프로그램이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울러 군은 시설 개선과 체험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2개소 10동 리모델링, 숲속 맨발길 1km 조성, 산나물 채취단지 2ha 조성 등 보완사업을 추진해 이윤과 편의성과 체험 다양성을 강화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국민 건강증진과 치유관광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환경성질환 예방과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숲체험 사진.

## 순천, 녹지 확충·재정 절감 동시에

### 가로수길 조성에 기존 수목 활용...예산 절감

순천시는 해룡면 남거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신규 가로수길 조성사업'에서 기존 수목을 재활용해 예산 절감에 나선다.

사업대상지는 해룡면 남거리 월전2교 차로부터 남가교까지 약 1km 구간으로, 시는 배롱나무 460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사업은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관리 중인 대대동 일원의 배롱나무 460주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재

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설계와 시공 전반에서도 공정을 최소화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예산 절감까지 함께 고려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